가상체험·웨어러블…황금알 낳는 스포츠산업 키운다

<착용 가능한 용품>

문체부, 스포츠산업 육성 10대 과제 발표

스크린골프와 같은 성공사례 재발굴 의지
프로스포츠 활성화·중소스포츠기업 지원
동계스포츠용품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크린골프처럼 스포츠산업에 IT를 접목해 야구 등 가상체험 스포츠시장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스포츠동아 DB

스포츠산업의 좋은 예로는 스크린골프를 들 수 있다. 한때 존재하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산업인 스크린골프는 2011년 기준으로 1조7000억 원의 새 시장을 만들어냈고, 2만명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스크린골프의 파급효과는 프로야구의 3.6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해 제2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던 정부가 스포츠산업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스포츠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IT 등과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까지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문체부)는 26일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문체부 윤양수 스포츠산업과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14~2018년)'을 토대로, 올해는 10대 실천과제를 통해 스포츠가 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3월부터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TF팀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내놓은 10대 과제의 핵심은 스포츠산업의 융·복합화 촉진. 야구 등 가상체험형 스포츠, 착용 가능한(웨어러블) 스포츠제품, 3D 인쇄기술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스포츠용품 등의 개발에 올해 8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제2의 스크린골프' 같은 성공사례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기념품사업 다양화 등을 통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중소스포츠기업의 자금 조달과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도 힘 쓸 예정이다. 현재 국내 스포츠산업체의 88%는 4인 미만의 중소 규모다. 문체부는 이들 중소업체의 육성을 위해 융자 금리를 4%에서 3%로 낮추고, 글로벌 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산업 동향 리포트를 발간하고, 스포츠산업포럼 개최를 통해 정보공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장기적 차원에서 스포츠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문체부는 아울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기업의 기술력과 중소기업의 제조능력을 결합시켜 부가가치가 높은 동계스포츠용품·장비 등의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지역별로 특화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전면 개정해 스포츠산업뿐 아니라 스포츠시설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스포슈머리포트'(Sposumer Report) 발간 및 민간체육시설 안전 모니터링단 운영 ▲스포츠산업 전문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도 10대 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렇게 준비하자

'제 2의 이상화·김연아' 발굴·육성 시급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투자 중요

3 뉴페이스 올림픽, 미래에 투자하자

한국은 2014소치동계올림픽에서 종합 13위(금3·은3·동2)에 그쳤지만, 새로운 얼굴들을 발굴하는 데는 성공했다. 한국컬링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무대를 밟은 '컬스데이' 여자컬링대표팀을 비롯해 설상 종목에서 두각을 드러낸 모굴스키 최재우(한체대), 스켈레톤 윤성빈(한체대), 빙상 종목에서 한국쇼트트랙을 이끌 심석희(세화여고), 김아랑(전주제일고), 공상정(유봉여고), 남자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은메달리스트 주형준, 김철민(이상 한체대) 등이다.

그러나 만족하기에는 이르다. 이들이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 4년 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제2의 김연아', '제2의 이상화'가 되기 위해선 선수 본인의 노력뿐 아니라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소치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은 이상화(서울시청)를 제외하고는 네덜란드에 완패를 당했다. 피겨스케이팅의 박소연(신목고)과 김해진(과천고)도 올림픽 무대를 밟았지만, 세계 수준과의 격차를 확인했다. 4년 안에 이상화나 김연아(올댓스포츠) 같은 스타를 발굴하지 못하면 안방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김이 샐 수도 있다.

새 얼굴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선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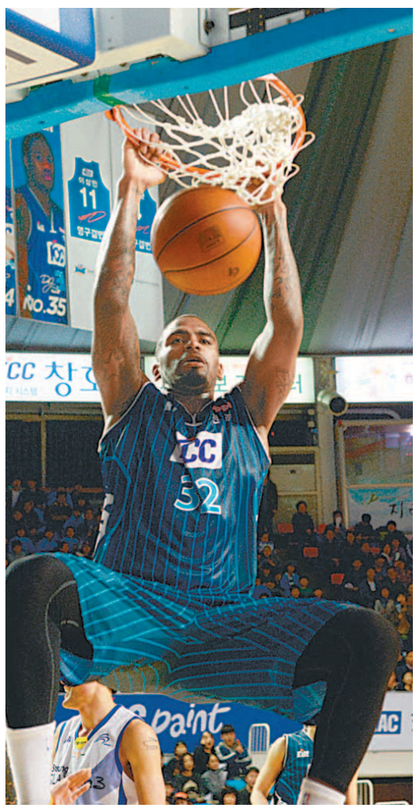
실제로 러시아는 소치올림픽을 위해 선수단에 엄청난 포상금(금메달리스트 1억 3000만원 등)을 내걸었고, 쇼트트랙의 빅토르 안(금3·동1·한국명 안현수)을 비롯해 스노보드의 빅 와일드(금2·미국), 피겨스케이팅의 타티야나 볼로소자르(금1·우크라이나) 등 7명을 귀화시켜 메달을 획득했다.

소치를 방문했던 정홍원 국무총리는 "컬링 등 비활성종목에서 희망을 봤다. 훈련환경이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열 소치올림픽 한국선수단장도 "이번 대회를 통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실제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여준 네덜란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이 강한 쇼트트랙과 비결을 교류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장점은 부각시켜 평창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KCC 허재 감독의 '윌커슨 딜레마'

득점력 높지만 수비에 약점…재계약 고심
다음 시즌 하승진 위주 전술 구상에 걸림돌



KCC 용병 센터 타일러 윌커슨(26·사진)은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득점왕이 확실하다. 26일까지 경기당 평균 22점으로 2위인 SK 애런 헤인즈에 평균 3.6점 이상을 앞서고 있다. 2003~2004시즌 찰스 민랜드에 이어 KCC 역사상 2번째 득점왕이 유력하다. 윌커슨은 리바운드(평균 9.94개)에서도 KGC 션 에반스(12.1개)에 이어 전체 2위다.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KCC 허재 감독이 주위의 예상을 깨고, 전체 3순위로 뽑은 모험이 적중한 듯하다. 그러나 정작 허 감독은 다음 시즌 윌커슨의 재계약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윌커슨의 빛과 그림자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버리기 힘든 장점은 득점력이다. 골밑싸움부터 미들슛, 외곽슛 능력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윌커슨을 버리고, 이만한 용병을 새로 뽑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럼에도 재계약을 주저하는 이유는 취약한 수비능력 때문이다. KCC는 공익근무요원 생활을 마치고 다음 시즌부터 복귀할 센터 하승진(29)을 위주로 팀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하승진의 움직임이 그리 넓지 않다고 본다면, 용병이 커버해줘야 한다. 그러나 윌커슨의 수비능력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잠정적 결론이다. 윌커슨의 팀플레이 지능이 떨어지고 실수가 많은 점도 마음에 걸린다.

다음 시즌 KCC는 2010~2011시즌에 이어 다시 우승에 도전한다. 하승진의 존재감이 큰 데다, 가드 라인에 강병현, 김민구가 버티고 있어 용병만 잘 받쳐주면 해볼 만하다. 올 시즌 6강 탈락이 확정돼 용병 픽에서도 우선권을 쥘 확률이 높다. 득점왕을 버릴지, KCC의 선택이 주목된다.

●KCC, 윌커슨 활약 불구 SK에 56-71 패배

한편 9위 KCC는 26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SK전에서 윌커슨의 21점 10리바운드 활약에도 56-71로 패했다. 원주에서는 2위 LG가 동부에 74-73으로 승리해 1위 모비스를 0.5게임차로 뒤쫓았다.

잠실 |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KDB생명 너무 늦게 발견한 '캐인 효과'

시즌 막판 눈에 띄게 활용도 높아졌지만
KB스타즈에 71-81 패배…PO행 좌절



여자프로농구 KDB생명은 개막에 앞서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올 시즌 내내 기대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26일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B스타즈와의 원정경기에서도 71-81로 패하면서 10승20패를 기록해 사실상 3강이 겨루는 플레이오프 진출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그러나 KDB는 최하위에 그친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강호의 면모를 되찾는 데 실패했지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경기력은 점차 향상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 센터 켈리 캐인(198cm·사진)의 활용도가 커진 점에 있다.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의 전설' 티나 탐슨의 존재로 인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탐슨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것이 캐인에게는 전화위복이었다. 켈리는 이날도 28득점 12리바운드로 고군분투했다.

국내선수들에게는 캐인의 활약이 반갑다. 팀을 이끌고 있는 KDB생명의 포인트가드 이경은은 "티나(탐슨)가 있었을 때는 경기 때나 훈련 때도 켈리(캐인)의 의욕적인 모습을 보지 못했다. 팀에서 비중이 커지니깐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는 모양이다. 같이 뛰면서도 의욕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장신의 캐인이 골밑에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이경은, 한채진, 이연화 등 외곽에 포진한 국내선수들의 플레이도 한결 수월해졌다. 이경은은 "수비가 켈리한테 몰리니깐 외곽에서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편하다. 외곽 찬스도 많이 난다. 켈리의 존재로 인해 제공권이 확실해져서 외곽슛을 쏘는 부담도 덜하다"며 캐인의 활약을 반겼다. 이경은은 이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켈리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경기력이 나아졌다. 올 시즌만 농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승리를 통해 팀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시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팀의 장점을 다시 찾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3위 KB는 이날 승리로 16승14패를 기록해 4위 삼성생명(14승15패)에 1.5게임차로 앞서게 됐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아사다 "김연아는 친구…수고했다"

日 귀국 기자회견서 오랜 우정 과시



라이벌은 가장 큰 경쟁상대기도 하지만 긴 여정의 동반자일 때도 많다. 아사다 마오는 25일 러시아 소치에서 일본 도쿄로 돌아가 김연아를 "경기장을 벗어나면 편하게 말을 주고받는 친구였다"고 말했다. 도쿄 | AP연합뉴스

아사다 마오(24·일본)가 김연아(24·한국)와의 우정을 공개했다.

아사다는 2014소치동계올림픽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간 25일 도쿄에서 열린 귀국 기자회견에서 김연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연아 선수와는 어릴 때부터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지만, 경기장을 벗어나면 편하게 말도 하고 친구 같은 관계였다"며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이 끝난 뒤 일본어로 '수고했다'고 말했다. 나 역시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답했다.

김연아와 아사다는 오랜 라이벌이었다. 뛰어난 실력에 예쁜 외모로 주니어 무대 때부터 줄곧 비교돼왔다. 어릴 때는 먼저 두각을 나타낸 아사다를 김연아가 쫓아가는 입장이었다면, 시니어 데뷔 후에는 세계무대를 평정한 김연아를 아사다가 뒤쫓는 관계였다. '김연아' 하면 '아사다', '아사다' 하면 '김연아'가 자동으로 따라붙을 정도로 둘은 오랜 기간 비교됐고, 치열하게 싸웠다.

아사다는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프리스케이팅이 끝난 뒤 한국 취재진과 만나 "연아 선수와 오랫동안 비교돼왔고 라이벌 관계로 지내왔는데, 그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은퇴를 한다고 들었는데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인사를 건넸다. 25일 기자회견에서도 "친구 같은 관계"라며 우정을 과시했다.

김연아도 소치올림픽을 마친 뒤 한국 취재진과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라이벌로 아사다를 꼽고는 "어릴 때부터 10년 넘게 경쟁을 했다. 앞으로도 우리 둘만큼 비교 당하는 선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랜 라이벌이었다. 상황이나 비슷한 점이 많은 선수여서 그런지 그 선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선수는 은퇴가 아닌 걸로 아는데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김연아, 소치올림픽 인상적 활약 설문 1위

'피겨 여왕' 김연아(24·올댓스포츠)가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발표한 '2014소치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에서 전체 응답자 중 5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한 이상화(25·서울시청)가 52%로 2위를 차지했다. '김연아의 은메달 판정은 공정했느냐'는 질문에선 5%만이 '공정했다'고 답한 반면 88%는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7%는 응답을 거절했다.

프로농구 전랜 홈경기서 '인천AG의 날' 행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2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리는 남자프로농구 전자랜드-kt전에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날' 행사를 연다. 이날 경기 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공식 주제가 '온리 원(Only One)' 뮤직비디오가 상영될 예정이며, 시구는 신아영 SBS스포츠 아나운서가 맡는다. 홈팀 전자랜드는 대회 홍보문구를 넣은 특별 유니폼을 입는다.

편집 | 박재윤 기자 parkjy@donga.com 트위터@parkjyoon